

2주차 문학과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영화 <연인>(1992)의 한 장면,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강의 이소윤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

- 서정/교술/서사/희곡의 4분법(조동일, 자아와 세계 사이의 관계)

-서정: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자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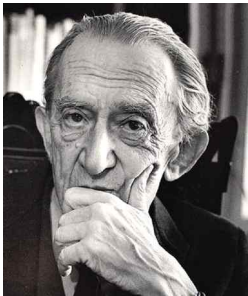
-교술: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의 세계화”

-서사: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희곡: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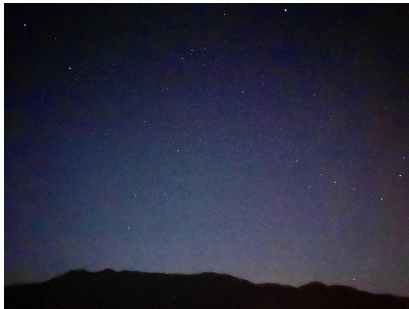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

- 게오르그 루카치 *Georg Lukacs* (1885-1971)
- 1885년 부다페스트 상류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
- 1910년 *형혼과 형식*, 1914-1915년 *소설의 이론*으로 문예비평가로 명성
- 1923년 *역사와 계급의식*, 1948년 *청년 헤겔*, 1954년 *이성의 파괴* 저술
- 1963년 *미학*, 1971년 *사회존재론* 등 만년에는 필생의 목표인 이들 저서를 집필하는 데 전력을 쏟음



이미지 출처: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3528>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



별이 총총한 하늘을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인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흰히 밝혀 주는 시대는 복되도다.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새롭지만 친숙하며, 모험에 찬 것이지만 뜻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다. 세계는 넓지만 마치 자기 집과 같은데, 영혼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본질적 특성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세계와 나, 빛과 불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지만, 서로 영구히 낮설게 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럴 것이, 불은 모든 빛의 영혼이며, 또 불은 모두가 다 빛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이다.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

- 『소설의 이론』(1914-1915)

- 서사시의 시대: 내면세계나 영혼의 자기탐색이라는 개념이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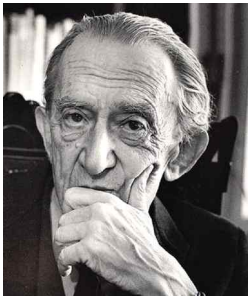
- 신성(神性)이 인간에 가깝고 친밀한 것, 부자(父子) 관계처럼 이해가 안되는 것

- 자아와 세계 사이의 균열과 부정합성이 인지되지 못했음

- “모든 것은 전체에 의해 수행되고 전체 속에서 일어나며 전체로부터 유래”

- “총체성”의 시대: 모든 것은 전체 속에서 일어나고 그 어느 한 가지도 배제되거나

다른 곳으로 추방되지 않는 시대



이미지 출처: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3528>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

- 『소설의 이론』(1914-1915)

- 소설의 시대: 근대로 접어들며 세계가 무한히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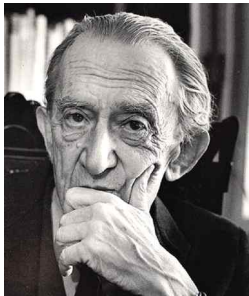
- 자아와 세계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며 “총체성”이 파괴됨

- 소설은 “선형적 실향성”을 표출하는 문학 형식

- 서사시와 소설은 공통적으로 총체성을 형상화

- 소설 속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불확실한 심리 상태에 놓임

- “문제적 개인”: 소설에 내재된 균열, 근대 사회의 균열을 드러내는 지표



이미지 출처: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3528>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

-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가지 방법』

- ① 작가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추적하여 작가의 의도나 역사적 현실을 통해 주제를 탐구하는 방법

특히 북한과 남한에서 살면서 최인훈은 남쪽과 북쪽의 이념적 실체를 잇달아 체험하였다. 그의 체험은 남한과 북한의 이념을 단순히 책을 통하여 관념적으로 경험하였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작가들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략) 북한에서의 경험이 『광장』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점에 대하여 최인훈은 한 대담에서 “내가 해방 후에 이북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북의 정치 체제를 그나마 경험했고, 또 1960년까지 남한에서 상당히 극적인 생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작품을 하나 써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내놓은 것이 그 작품이지요”하고 말한 적이 있다.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

② 작가가 주로 쓰는 모티프, 구성, 상징, 이미지 따위를 분석하면서 드러난 주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방법

최인훈이 이 작품에서 즐겨 쓰는 몇몇 상징이나 이미지 가운데에서도 물이나 바다는 특히 눈길을 끈다. 작품의 첫머리부터 작품의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물은 가장 지배적인 상징이나 이미지로 쓰인다. (중략) 그렇다면 바다나 강은 이명준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편력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다나 강은 항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항해는 삶의 여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중략) 한마디로 이명준의 자살 행위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의사 표시요 의미있는 몸짓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살을 통하여 그는 그 이전과는 달리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삶이라는 항해에서 난파당한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

❸ 문학 작품은 마치 꿈과 같아서 작품이 말하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전제 하에 작품의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는 방법

그에 따르면 어머니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적대자로 간주하기 일쑤이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 어머니를 차지하는 환상을 갖기도 한다.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모든 반항은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부모, 특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거부와 연관되어 있다. (중략) 외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하여 북한으로 건너가는 이명준이 아버지로 대변되는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그 대신 은혜로 대변되는 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정치 현실에 깊은 환멸을 느끼는 그는 마침내 은혜를 '마지막 광장'으로 선택하기에 이른다.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1892-1940)
- 1892년 베를린에서 부유한 유대인 상인의 장남으로 출생
- 1919년 스위스 베른 대학 「독일 낭만주의의 예술비평 개념」으로 박사학위 취득
- 1925년 「독일 비애극의 원천」을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 자격논문으로 작성
- 1940년 스페인 국경 근처의 한 모텔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1936)
- 모든 예술 매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 ⇒ “시간적, 역사적 운명”
- 그림의 묘사는 사진으로, 소설은 영화로 기술적 매체에 의해 새로운 장르 등장
- 예술 매체의 변화는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
- 1885년 프랑스 뤼미에르 형제는 파리 그랑 카페에서 시네마토그래프를 공개
- 1910년대 무성영화의 황금기, 1926년 Vitaphone의 발명
- 르누아르, 에이젠슈타인과 같은 천재 감독들이 영화의 예술적 발전을 이끔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1936)
- 벤야민의 논문 집필 당시 영화는 이미 독자적 영상 미학을 갖추.
- 프랑스 필름 다르 운동의 실패: 영화만의 독특한 표현방식, 영상언어 개발X

“바위의 깊은 층들은 오로지 균열이 난 곳들에서만 드러나는 것처럼, 경향이 라는 깊은 층 역시 예술사(와 작품들)에서 균열이 난 곳에서만 눈에 띄는 법이다. 기술적 혁명은 예술의 발전에서 균열이 난 부분들로서 거기에서 경향들이 그때그때 노출되어 드러난다. 모든 새로운 기술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경향은 예술의 아주 숨겨진 요소로 머물러 있다가 마치 저절로 되듯이 명백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영화에 이르렀다.”

-「오스카 슈미츠에 대한 반박」(1927)



이미지 출처: <https://blog.naver.com/estgem/222047373297>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1936)
- 예술작품은 원리적으로 늘 복제가 가능했음
- 수공업적 복제:
- 기술적 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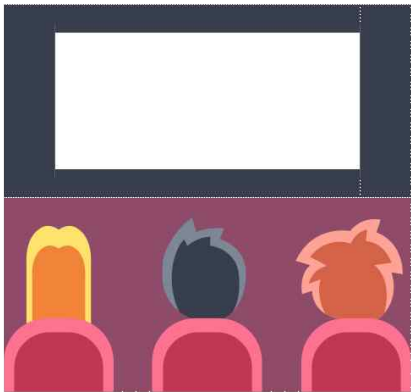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요하네스 베르메이트의 <회화의 기술, 알레고리>(1665/1666)와 영화 <틀립피버>(2017)의 한 장면
이미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네이버 영화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1936)
- 영화와 “아우라의 상실”
- 영화와 연극의 차이:
- “영화는 관중으로 하여금 비단 감식자의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만이 아니라 그와 아울러 이러한 영화관에서의 관중의 감식자적 태도가 주의력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의 가치를 뒷전으로 밀어”낸다.
- 동시적 집단 수용이 아우라가 요구하는 “침잠”을 방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 “영화에서 기계 장치가 완전히 배제된 채로 재현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사실은 정반대의 사태, 즉 기계 장치가 현실에 고도로 깊숙이 파고든 상태에 근거”

이미지 출처: [\[단독 공개\] 유지태 주연 도박블링 영화 <스...>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영화의 내적 요소

주제

미장센

내러티브

인물

사운드

영화의 외적 요소

감독

작품의
배경

수용자
반응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올드보이>(2003)의 한 장면, 네이버 영화 스틸컷



<사운드 오브 뮤직>(1965)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어둠 속의 댄서>(2000)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감상평 작성의 꿀팁

작가의 삶과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주목하라!

숨겨진 의미를 찾아라!



참고문헌

게오르그 루카치, 김경식 옮김,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14.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1996.

김지미, 『영화평-어떻게 보고, 어떻게 쓸 것인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2011.

신희교, 「G.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 소고 I」, 『어문논집』27, 민족어문학회, 1987.

이용욱, 「기술편집시대 아우라 연구의 방향성」, 『국어국문학』188, 국어국문학회, 2019.

이운영 엮고옮김, 『사유 속의 영화』, 문학과 지성사, 201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5.

정주아, 『서평 쓰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2012.